



(사)부산미술협회·(주)디자인하우스(행복이 가득한 집)·부산디자인진흥원 동시 협업 개최

## 2025 제45회 부산미술제, 제14회 BFAA 국제아트페어 성공 개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린 예술 축제, '홍'의 예술도시로 미술의 생활화, 예술의 대중화를 제시하다

부산미술! 대융합으로 지향하고  
공유 공간과 협업으로  
예술과 디자인 융합, 산업발전 기여  
'홍'의 예술도시 부산의 미래 밝혀

부산미술의 오늘을 집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부산 최대의 예술 축제 '제45회 부산미술제'와 '제14회 BFAA 국제아트페어'가 지난 6월 26일(목)부터 6월 29일(일)까지 4일간 벅스코 제2전시장 4홀(D, E, F)에서 동시 개최되었다.



벅스코에서 동시개최된 2025 제45회 부산미술제, 제14회 BFAA 국제아트페어 개막식 기념촬영 사진.

### 제45회 부산미술제

올해로 45회를 맞이한 부산미술제는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부산미술제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부산미술! 대융합으로 지향하다'라는 주제로 선보였다.

이번 부산미술제는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영상미디어, 서예, 문인화, 학술평론 등 12개 미술 장르에 걸쳐 60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부산미술의 다양성과 깊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화려한 규모로 펼쳐졌다.

개인의 서사와 감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물로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했고, 디자인과 영상미디어 작품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통성과 목직한 정신성을 담은 서예·문인화 부문도 현대적 감각과 어우러져 더욱 돋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고,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대중과 공유하며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작가 간 세대 교류와 장르 간 융합이 보다 활성화되어, 고립된 작업실의 창작이 아닌, 열린 예술생태계 속 협업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부산미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

또한, 지역 미술인의 참여 폭은 물론, 다양한 예술 언어가 자유롭게 충돌하고 융합되며 부산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전시 지원과 창작 기반 조성을 통해, 향후 부산미술제는 부산미술의 정체성을 묻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미술계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제14회 BFAA 부산국제아트페어 '부산미술!홍으로 협업하다'를 테마로 기획된 제14회 BFAA국제아트페어는 디자인하우스(행복이 가득한 집), 부산디자인진흥원과의 동시 협업으로, 전례 없이 복합적인 예술·디자인 융합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이번 행사는 부산미술협회 정회원과 해외 작가 등 400여 명의 뜨거운 참여 속에 일본 교토 및 후쿠오카 아트페어와의 교류 초대전, 김정명 특별전, 5개국 미디어 영상 특별전, 청년작가 초대전 등 다채로운 국제 콘텐츠가 눈길을 끌며, BFAA가 시장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아트페어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입증했다.

제14회 BFAA 국제아트페어는 단순한 아트페어를 넘어선 창의적 기

획 전시로 큰 주목을 받았다. (주)디자인하우스와의 콜라보로 구성된 '공유공간 특별기획전은 전통적인 부스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미술과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소방용품을 활용한 작품공간 '제난 안전전시 : RE : 홍' 및 공유공간 특별기획전 '하모니 오브 리빙 : 식스 센스'의 디자인 브랜드로 연출한 6개의 공유 공간은 일상과 예술이 맞닿는 감각적인 무대가 되었다. 관람객들은 이 공간 안에서 작품과 하나 되는 '머무는 감상'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미술의 생활화, 예술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열렸던 BFAA 국제아트페어 부대 세미나는 현대

미술의 흐름과 시장을 깊이 있게 짚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와 미술작가 고상우는 '미술 저작권의 이해'를 주제로 저작권 보호의 실무와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논의했다.

일본 요시다 다이사쿠의 후쿠오카시 예술 활동 사례 강연은 국제 예술 네트워크의 실질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종호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의 '이우환과 관계 미학' 세미나는 예술이 시대와 관계 맺는 방식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며 예술의 내면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사유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선보인 디자인하우스와의 협업은 부산미술이 다른 예술 영역과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공유공간의 경우, 기존 미술전시의 한계를 넘는 매우 중요한 시도였으며, 시민과 감각적으로 연결된 예술적 소통창구로 작용했다. 또한, 관람객 유치와 미술품 판매, 창작자와 컬렉터의 접점 확대 등 실질적 성과는 물론, 미술을 매개로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제45회 부산미술제와 제14회 BFAA 국제아트페어가 남긴 흔적은 단지 4일간의 축제에 머물지 않았다. 이번 두 행사의 동시 개최는 도시의 문화콘텐츠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미술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이며, 부산의 동시대 현대미술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협업을 한자리에 선보임으로써 부산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 2025 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개최

긴 역사 자랑하는 '부산미술대전'

6월 3일부터 원서교부 시작

8월 25일, 서예·문인화 접수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원서교부가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1975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51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미술대전은 지역을 넘어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최대 미술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부산미술대전은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다양한 장르 안에서 각기 다른 주제와 표현방식을 통해 동시대 작가들의 사유와 철학이 스며든 작품들은 작가 개개인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도록 매년 개최 하고 있다.

이번 부산미술대전은 만 20세 이상인 미술인 중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총 12개 부문에서 출품가능하다.

▲ 1차 작품 사진 접수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10월 23일(목)부터 10월 24일(금)까지 이틀간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예술회관 4층에서 접수. ▲ 2차 작품 접수 △ 서예, 문인화 8월 25일(월)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예술회관 1층에서 접수.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수채화, 민화·불화 부문 11월 16일(일)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bfaa.or.kr>) 협회소식 참조 또는 전화(051-32-2400)로 문의하면 된다.

## 2025 부산미술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지난 5월 23일 금요일 오후6시에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사)부산미술협회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 2025년도 제2차 이사회가 2025년 5월 23일 오후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재직 이사회 임원 65명 중 51명이 참석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보고 사항으로는 △제21회 송혜수미술상 결과보고 △2025년 제13회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OPEN MATCH 청년작가전 결과보고 △2025년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결과보고 △2025 제34회 부산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 미술실기대회

진행현황 △2025 갈매랑 축제 진행현황 △2025 부산예술지원 매칭펀드(메세나) 선정 결과 △2025 제14회 BFAA국제아트페어 진행현황 △2025 제45회 부산미술제 진행현황 △2025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진행현황 △2025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 「해양의 발견과 시각예술의 만남」展 진행현황 △2025년 당대 한중교류전·동서대 공자아카데미 진행보고 △업무협약식 등이 다뤄졌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건1 제62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 & 부산미술대전 계획(안) ▲안건2 2026년 부산갤러리, 금련산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 대관공고(안) ▲안건3 신입회원의 전과, 탈퇴, 복권 신청 건 등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됐다. 기타토의 사항으로는 제명대상자 분과별 명단 검토 등이 이어졌다. 부산미술협회는 하반기 진행예정인 주요 미술행사의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명사칼럼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우주 만물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 사회의 제도나 질서,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조차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정의는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적 증거를 연구, 교육, 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상호교류하는 비영리적인 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한대로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2022년 국제 미술관 협의회 ICOM은 '미술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18세기 이전 일부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캐비닛 안의 문화자산과 지식은 프랑스 혁명 이후 이제 루브르 궁전에 있는 왕의 문화 예술품들은 시민의 것이다!라는 혁명 정부의 선언과 함께, 공공재로서 공유화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아는 공공미술관의 출현이다.

이후 18세기-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루브르,蓬피두 미술관, 20세기 초, 유태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구겐하임, 모마 미술관, 20세기 후반, 상업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거쳐 지금까지 미술관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역사는 반복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21세기, 동시대 미술관들은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미술관의 전문성이라는 권위

와 권력은 대중들에게 이양되고, 분절된 예술 장르들은 통섭, 융합되고 있으며,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는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25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미술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내년 가을에 재개관을 할 예정이다. 변화의 시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재개관은 부산시립미술관이 미래형 미술관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준비의 시기를 의미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로 나가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기본 개념을 연구해 보았다.

먼저 부산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단지 낙후된 미술관의 보수뿐만 아니라 건축 측면에서 미래형 미술관을 위한 4가지 물리적 실험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일 \_목적에 따라 공간 기능의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한 '가변의 유동성(transforming space)'

이 \_수평(안과 밖), 수직(위와 아래)의 시각적 경계를 확장한 '경계의 해체성(liminal space)'

삼 \_다양한 문화 간 물리적 융합이 가능한 '문화의 다면성(multicultural space)'

사 \_저 탄소 발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의 보존성(low carbon space)'

또한 부산시립미술관은 수집, 연구, 창작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기존 미술관이 성취해 왔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 7가지의 확장된 미래 비전을 제안하게 된다.

일 \_아시아의 문화 주체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미술관

이 \_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성을 세계화하는 글로벌(Global) 미술관,

삼 \_다세대, 다계층, 다문화 간의 위계가 없는 공공과 공유(公共·共有)의 미술관

사 \_예술, 과학, 인문 사회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 융복합미술관

## 미래의 부산시립미술관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부산

##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시립미술관

오 \_동시대 사회에 대해 치유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 실천적 미술관

육 \_온오프라인의 다중세계에 공존하는 무한영속, 무한확장의 메타미술관

칠 \_인간(Human), 자연(Ecology), 기술(Technology)의 조화, 공존을 추구하는 미술관

위의 부산시립미술관의 형식적, 내용적 예술 비전은 동시대 미술관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문화 헤게모니의 중심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방향성일 것이다.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문화 매개 기관들은 미래형 미술관이란 새로운 미술사를 쓰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들을 제안하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적응이 아닌 선도의 예술적 실천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6년 가을, 부산시립미술관은 재개관한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은 세계 근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성장의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Modernism)는 산업혁명과 경제발전과 같은 '기술적 근대화'와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사회적 근대화'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아마도 한국에서 '기술적 근대화'의 상징 도시는 울산이고, '사회적 근대화'의 상징 도시는 광주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서구에서는 이 두 가지 근대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0년도 이후에나 '사회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술적 근대화'와의 시기적 간극이 너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간극은 물질 지향적 압축성장과 더불어 '문화지체'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문화지체 현상(cultural lag, culture lag)'은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William Ogburn)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물질문화의 변동속도가 비물질문화의 변동속도보

다 빠를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문화'는 주로 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비물질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부터 제도적인 부분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살게 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품위와 품격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타 지역인들이 모여 형성된 문화 다양성의 도시인 부산은 한국 '문화적 근대화'의 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이다. 부산은 한국 전쟁 시기에는 피난 수도로서 다양한 지역인이 공존, 공생했던 문화의 용광로였다. 또한, 과거부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물리적 교류, 접전지였으며 현재는 세계 2위의 물류 환적항구를 보유한 경제 유통의 중심 도시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은 지역성과 포용성, 주체성과 개방성의 양가적인 특성을 가진 조화론(harmonism)과 전체론(holism)의 도시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부산은 '한국의 문화적 근대화의 상징적 도시'라고 감히 주장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또한, 전체적 관점에서 '문화적 근대화'의 상징 도시인 부산은 한국의 기술적 근대화와 사회적 근대화의 불균형적인 틈을 메우며 한국의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하는 대안의 도시일 수 있다. 또한, 전체적 관점에서 조화론(harmonism)과 전체론(holism)의 도시인 부산은 과거 동서양 간 이원론의 '모더니즘', 해체론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선 새로운 상보적, 합일적인 미래의 메타 사상과 문화를 창출할 기회의 중심지일 수 있다.

미래의 문화를 선도할 기회의 시기, 기회의 장소인 부산에서 기회의 공간인 부산시립미술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술적 실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정량적 의미에서 한국 제2의 도시, 두 번째 규모의 공립미술관인 부산시립미술관은 미래, 정성적 의미에서 아시아 제1의 문화중심 도시에 있는 최초의 미래형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제21회 송혜수 미술상 예유근 작가 수상기념전 열려

8월26일~31일,

금련산갤러리



서양화가 예유근

부산화단 1세대 서양화가 故 송혜수(1913-2005)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해 제정된 송혜수 미술상의 제21회 수상자로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서양화가 예유근 작가를 선정했다. 송혜수 미술상은 故 송혜수



시간기억. 동주(memory of time, dongju) \_50호F \_캔버스에 아크릴릭, 2022.

화백이 생전에 자신의 사재를 들여 부산미술계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만든 상으로, 참된 예술정신을 가진 중견작가를 발굴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시상되고 있다. 본 상은 평면 또는 입체 예술분야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온 만 60세 이상의 작가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1인을 선정하여 수여된다.

예유근 작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서양화 전공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서양화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후학을 양성

과 작가활동을 병행하며 지금까지 총 13회개인전과 국내외 400여 회의 전시에 참여해온 중견작가이다. 1981년 부산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1984년 비영리 미술공간 사인화랑을 운영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부산미술의 태동에 기여했다. 다양한 작품활동과 운영위원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부산비엔날레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예유근 작가의 작품세계는 형식적 실험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시대적 과제를 성찰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회화와 오브제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는 고차원적인 상징성과 그 안에 녹아든 사회적 맥락은 동시대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최근 작업은 사공간을 넘나드는 은유와 역사적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서사와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시상금 500만 원과 전시지원금 500만 원 등 총 1000만원(수상기념전 지원금포함)이 수여되며, 수상기념전은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 이작가를31주목한다

대담/글 : 진수아 (학술평론분과 위원)

서양화 박용대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특별하다. 작업실에는 그림들과 화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작가의 따스한 미소가 구석구석 번진다. 큰 창으로 저녁노을 빛이 넉넉하게 내리고 있다.

박용대 작가의 뿌리는 고향과 스승에게 있다. 어린 시절 야구선수를 꿈꾸며 운동을 좋아하는 열정 넘치는 소년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 우연히 미술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친구들보다 실력이 부족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지만 미술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작가는 닫힌 벽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화실을 운영하며, '부산 사생회보' 편집장, '구상 21' 격월간지 창간호(1998)를 발간하면서 회장을 역임했다.

범람하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사상(思想)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작가는 나이갈 화법에 갈등을 겪으며 고뇌에 빠졌다. 전국 각지를 수십 년간 사생(寫生)을 다니면서 작품을 해왔지만, 정작 내 고향인 '부산(釜山)'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시대적 민감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우리 고장 '부산'의 지역색을 구상적으로 표현했다.

1999년 밤 초량 산복도로에서 '부산항'을 바라보다가 부산의 밤 항구가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형형색색의 불빛들 속에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감지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현장감을 느꼈다. 이 화려한 '부산의 빛'들에 크게 감동하여 차마 외면하고 지나칠 수 없었



1999년 부산항 \_648.8x130.3cm \_oil on canvas, 2009.

다. 내가 살아오면서 바라본 바다와 강, 정겨움에 강한 애향심이 일어나 붓을 잡게 되었다고 한다.

부산(釜山), 한국전쟁기 때 피란수도였고 동북아시아 시대 해양수도이며,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 도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영화제, 불꽃 축제 등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생동하는 도시의 숨결은 언제나 박용대 작가의 심안에 울림으로 머물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그곳에는 여러 모양의 '빛'이 있다. 화려하게 어우러지는 불빛 속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바다를 근원으로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불빛의 항구도시 '부산'을 점·선·면으로 평면인 화면에 공간감까지 표현하고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으로 아름다운 원색, 생동감, 리듬감을 부여하며, 모든 종류의 색들을 주옥(珠玉)처럼 그림으로 녹여냈다.

박용대 작가는 어두운 바탕 위에 건물 실루엣과 빛의 흐름을 강한 대비로 표현하며, 인공조명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빛의 형상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재해석했다. 낮 풍경이 주는 일방적 흐름인 태양광에 비해 야경(夜景)을 작업한다는 것은 양광(陽光)에 익숙해져 있는 풍경 화가로서는 산만한 느낌마저 드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작가의 조형적 의도로 광원(光源)을 설정하여 야경의 표현방식이 자유로웠다. 그는 다양한 소재와 색채, 양식과 기법을 모색하면서 예술 세계를 형성해 나갔다. 별빛이 흐르는 밤에 존재하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생생히 구현하고 있다. 작가의 손끝으로 완성한 찬란한 밤은 관람자를 상상의 세계로 이끌며 부산의 서정적인 정서와 마주하게 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형

빛들이 그려내는 순간순간의 그 아름다움이 다채롭다.

작가는 부산의 빛나는 풍경들을 장소 특유의 색감과 화법으로 재현해 냈다.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 〈1999년 부산항〉〈부산의 빛-동백섬〉〈부산의 빛-수영장〉〈부산의 빛-영도 남항〉〈광안리의 빛〉〈기장-죽성〉〈남항에서 본 자갈치〉〈남포동·광복동 그리고 남항〉〈옛 부산역-초량〉〈낙동강-삼락동〉등등 도심과 바다 배경의 밤 풍경은 현실을 초월한다. 원론적일지라도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보고 공간의 공기와 작품의 질감, 조명, 크기 등을 온몸으로 체감할 때 비로소 그 표현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평생을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그리고 인상주의에 기반한 구상적 화법으로 부산의 야경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작가 박용대. 그는 풍경 자체가 아니라 풍경이 낳은 '감각'을 묘사하며, 실재를 드러내면서도 개인의 주관성을 놓치지 않는다. 화가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 프랑스)은 '자연에 따라 그린다는 것은 결코 대상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각을 실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그림은 구도 설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조망도(眺望圖)에 가깝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 가까이서 바라보고 관찰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간강이 힘들지만, 차차 좋아지리라 믿으며 결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어려움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내공이 있으니, 작가는 각양각색의 불빛들을 심어가며 삶의 모습을 표현해 보는 이 작업이 매우 흥미롭고, 그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좋다고 한다.



기장-죽성 \_162.2x112.1 \_oil on canvas, 2014.



아미산에서본 부산항 \_162.2x112.1cm \_oil on canvas, 2024.

끝으로, 해양도시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낙동강 하구의 풍광까지 우리 고장의 색감을 찾고 있다. 정감이 묻어있는 고유색을 찾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만, 특징적인 고유색을 찾는 일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거시적인 '예술의 티'로 바라보자. 여름의 부산은 예술이 머무는 계절이다. 문화는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연결한다. 바닷바람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의 결마다 작품과 사람이 천천히 스며든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한 장의 풍경화처럼 기억될 공간이다. 그 안에 계절의 선물이 담겨 있는 이곳이 '부산(釜山)'이다. 탁 트인 해안과 예술을 사랑하는 박용대 작가의 '빛'으로 피어나는 도시(都市)이다.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보고 그려온 고향을 지킨 작가의 손끝에서 완성된 도시 '부산'이다. 그는 '부산의 빛'을 조금씩 새로운 열정과 방식으로 리셋(reset)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예술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문장 하나로 작가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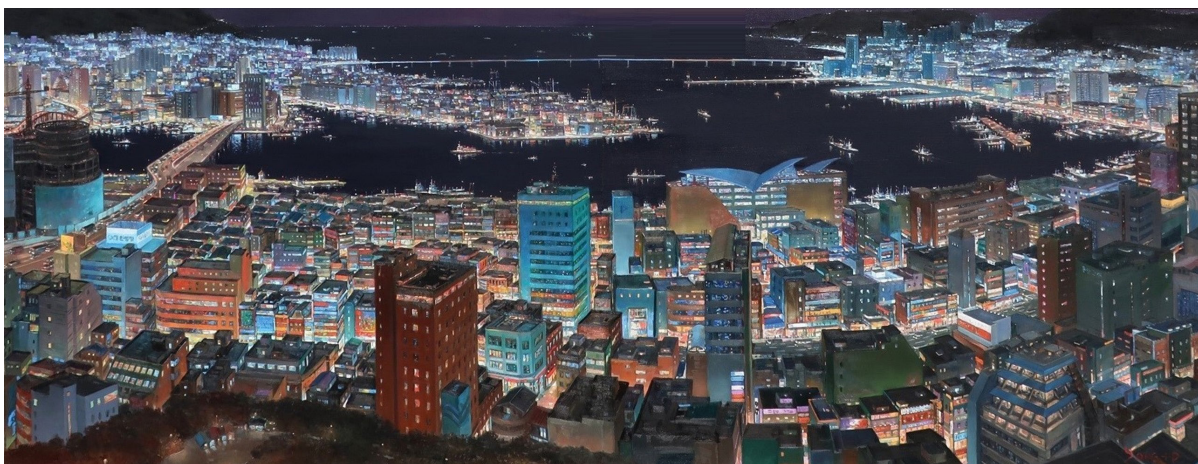
작가의 그림들이 오래도록 명작(名作)으로 남을 이유는 분명히 '부산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을 일상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며, 예술이 어떻게 삶과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래서일까, 박용대 작가가 걸어온 길 위에는 조용하지만 선명한 시선이 남는다.

작가의 작품을 보고 싶다면 '빛의 도시 부산(釜山)'으로 가자.

개인전 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입선 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한국구상작가초대전. 작업전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이탈리아 대한민국 우수작가 초대전(밀라노), 부산미술80년 부산의작가들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미술재조명전(부산시립미술관), 제1회 부산미술대전초대작가상수상, 부산미술대전심사, 운영위원역임, 한국국전작가회 창립전(2012) 그 외 다수

현) 사단법인 국전작가협회회원, 구상작업미술가회 회원, 신작전(新作展)회원, 부산사생회 자문위원, 부산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회원, 한국청년구상작가회



남포동, 광복동, 그리고 남항 \_324.4x130.3cm \_oil on canvas, 2009.

## 인류를 흔든 얼굴들, 찌그러진 캔 위에 피어나다.

조각가 김정명 개인전  
선각자를 넣은 750개의  
얼굴 작업 선보여



조각가 김정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 조각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정명 작가는 쓰구바대학교 예술학과 연구원, 로스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객원교수를 거쳐, 부산대학교 예술대학교 미술학과에 재직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2010년 퇴직 후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천인의 얼굴 \_ 13x19x4.5 cm x 750개 \_ 캔 위에 유채, 1997~2004.

이미지와 혼합재료를 사용한 설치 및 다양한 장르의 미술로 새롭게 생성해 내고 변화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김 작가의 기획초대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월갤러리에서 열렸다.

김 작가의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존재와 기억, 감각과 사유의 깊이를 탐색하는 철학적 여정을 담고 있다. 특히 찌그러진 깡통위에 그려진 역사적 인물들은 소비되고 잊혀지는 오늘의 가벼운 정보 사회 속에서 인간 정신의 숭고함과 흔적의 무게를 다시 되묻는다. 그에게 예술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이기 이전에,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되살리는 의식이며 시간의 강을 거슬러 떠오르는 인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수면위로 건져내는

일이다.

‘Yellow Line’은 가시성과 경각심을 지닌 강렬한 노란색으로 시대를 바꾼 이들의 흔적이자, 소비되고 망각된 위대한 정신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김 작가는 “그들은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다”라며, “이 땅을 일구고 돌보며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신비를 잇는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작가는 도판을 오래 구기고 접으며 평면을 입체로 재구성하는 독창적 회화-조각 작업을 선보였다. 미술사의 도상은 그의 손끝에서 주름지고 솟아오르며, 일상의 파편, 레디메이드 이미지, 잊혀진 인물들을 통해 단절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반복 속에서 ‘차이’를 생산하는 유희로서의 예술을 신전하고 있다.

‘차이를

만드는 놀

이를 지속해온 김 작가는 평범한 재료를 예술로 되살리며, 반복과 변주의 과정을 통해 ‘존재’와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임과 동시에 예술이 여전히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현장이다.

“여기 붙여둔 750개 작업은 1999년 300개를 가지고 대안공간 ‘점’(대표 김성연) 개관 기념 초대전에 첫선을 보였고, 두 번째로 2000년 10회 개인전에서 500개의 얼굴로 선을 보인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작업으로 잠깐 멈췄지만, 언젠가는 천인의 얼굴까지 는 해보고 싶은 바람이다. 찌그러진



(디테일컷) 천인의 얼굴 \_ 13x19x4.5cm \_ 캔 위에 유채, 1997~2004

깡통에 선각자를 넣은 발상은 그들의 업적을 순간 상식으로 자리하다 초개처럼 잊혀진다는 사실이 어찌면 갈증해소를 위해 마신 후 바로 버려지는 일회용 깡통과 진배없다는 연민에서 비롯된다. 불굴의 투지와 칼날같은 예지로 세상에 귀감이 되어 온 이들은 분명 인간성찰의 지표이다. 죽어있는 깡통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겨진 그들이 나를 지켜본다.

오늘 다시 모두 모아 보여주게 한 이월갤러리(대표 김경희)께 감사드립니다.”

-2025. 5. 김정명작가 노트 발췌-

## 무의 얼굴, 존재의 틈

정체의 경계에 선  
정희욱의 조각적 사유  
‘나는 내가 아니다’



조각가 정희욱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각가 정희욱 작가의 개인전이 부산 중구 북병산 작은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제로 하여, 총 1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정희욱 작가는 1962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부산공예고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1993년 부일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 주목받았다. 이후 부산시립미술관, 금정문화회관 야외광장 등에 작품이 설치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완성된 석조 조각을 일부러 파괴하고, 그 파편을 다시 이어붙이는 방식을 통해 고정된 자아와 본질의 개념을 해체했다.

‘멍청한 자각상’, ‘21세기 돌 등의 대표 작품은 얼굴 조각과 단색 평면을 병치시키며 배경과 형상의 경계를 흐리는 시각적 긴장감을 가진다. 조각은 더 이상 완성된 대상이 아닌 존재의 과정으로서 드러나며 관람자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가가게 한다.

이처럼 정 작가의 작업은 조각이라는 물성을 넘어서 철학적 사유를 시각화하려는 진지한 태도에서 출발한다.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정체성 부정을 넘어,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고 해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조망하는 미학적 시도이다. 반복과 파괴, 조합과 생성의 흐름 속



나는 내가 아니다, 의령석, 370 x 230 x 130mm, 1998.

에서 열린 해석을 유도하며 오늘날 조각이 단순한 재현을 넘어 ‘사유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전시가 열린 북병산작은미술관 역시 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연결된다. 고요하고 압축된 공간은 깨어지고 다시 붙여진 조각들과, 무표정하게 놓인 단색 평면들과 함께 긴장과 균형을 공존하게 하며, 관람자를 사유의 무대로 이끈다. 그의 작업은 해체의 미학 속에서 새로운 자아와 의미를 구성하는 삶의 여정과 닮아 있다.

정희욱 작가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지점으로 갈 수 있는 해체 중간단계이다.”라고 전하며 “현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만의 조형기법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예측 불가능한 실존의 좌표

공간과 사물,  
감각과 직관 사이를  
유영하는 조형적 탐색



서양화가 홍순환

인간, 사물, 물질, 현상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자신과의 연결점을 찾아 조형화하는 홍순환 작가의 기획초대전이 6월 5일부터 26일까지 갤러리 인터페이스에서 열렸다.

홍 작가는 대상을 직관적으로 수용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고정된 표현방식에서 벗어난다. 또한, 직접 그리는 동시에 타인의 개입도 허용하며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사물과 오브제, 그리고 장소가 지닌 감각적 요소들은 그의 직관에 따라 선택되고 재배열되며, 이들 사이에 낳은 긴장감이 발생한다.

특히 일상의 재료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배치된 설치 작업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고, 각자의 선입견과 마주하도록 만든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회화와 설치, 오브제를 넘나들며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탐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감각적 좌표를 되묻는다. 이는 곧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자 비판적 고찰로 이어지며, 작품은 감각의 충위를 확장시킨다. 예술의 경험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능동적인 해석과 직관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작품 ‘Inter-Form: Untitled’ 는 형식



갤러리 인터페이스 홍순환작품 전시장 전경사진

이나 주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관객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이는 작가만의 비고정적 조형방식, 그리고 타인의 개입을 수용하는 실험적 태도와 긴밀히 연결되며, 그의 직관적 감각은 우리 시대의 불확정성과 은유적으로 닮아 있다.

홍 작가는 “나는 스스로를 움직이는 본능적인 행위가 가진 태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나의 팔 길이만큼 가닿고 다리 길이만큼의 보폭으로 걷는 것”이라고 말한다. 감각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와 상황을 읽어내는 그의 태도를 잘 드러난다.

결국 그는 현대미술의 다층적 경계지점에서 관계와 감각, 이성과 직관의 균형을 모색한다.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예술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기존의 통념을 유연하게 질문하는 독창적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를 구축해 나간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32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지회」 Since 2011

창작 공동체를 통한 예술의 일상화와 지역 상생을 이끈다



2023년도 삶과 작업전-좌천동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전시회 개막식 현장사진.



2011년~2023년도 한국전업미술가회 부산지회 전시도록 표지.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KPAA)는 1997년 창립 이후,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을 거쳐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업미술가 단체다.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대전·세종 등 총 9개 지역 지회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의 전시 활동을 통해 한국 미술의 뿌리와 확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올'을 자체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는 KPAA는 매년 대한민국미술제, 한국미술전, 전국 정기전 및 교류전을 개최하며, 조형 이념의 탐구와 창작 활동을 통해 미술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전업미술가들의 권익 신장, 창작 기반 조성, 회원 간 유대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지회는 2011년 창립되어, 지역 내 전업작가들의 예술 실천 무대를 꾸준히 넓혀왔다. 특히 대표 전시 브랜드인 《삶과 작업전》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부산전업미술가상을 제정하는 등 부산 미술계에 뿌리 깊은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2012년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 단체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현재 60여 명의 정회원이 한국화, 서양화, 입체 분야 등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지회의 최근 주요 전시 프로젝트는 일상 속 열린 공간을 무대로 한 '거리미술관 프로젝트'다.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좌천동 가구거리에서 개최된 《삶과 작업전》은 상업 공간과 예술작품이 결합한 대안 전시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가구+작품을 잇다", "Linkage" 등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예술과 공간, 사람과 생활, 지역과 상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예술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상

권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 재생, 문화예술 기반 확대, 관람객의 일상적 예술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부산 미술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고 있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 박동호 회장은 "앞으로 부산지회는 전통적인 정기 전시뿐 아니라, 도시와 생활을 매개로 한 예술 프로젝트 기획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예술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전업미술가의 창작 의지와 지역과의 접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는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의 언어로 일상과 호흡하며 '자생적'인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술은 시대와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이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전업미술작가들의 집단지성을 일깨우고자 단체의 운영 철학이 전시감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문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전업미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시대를 기록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그 자체가 곧 삶과 예술을 잇는 힘이자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다.

부산지회는 향후, 전시 기획을 넘어 교육, 워크숍, 지역 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젊은 전업작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예술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공 공간과 생활 공간에서 예술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술이 도시의 일상에 스며들고, 창작이 개인을 넘어 지역과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는 그 접점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넓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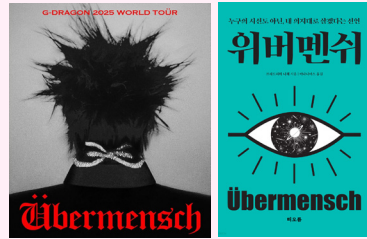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예술 향유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예술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업'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생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예술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진심과 태도가 깃들여 있다. 부산지회의 행보는 바로 그 진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며, 오늘도 조용히 지역과 예술의 다리를 놓고 있다.

컬렉터 집중분석

- 스물여덟 번 째 이야기

“나는 나 다워서 아름다워”

- G-드래곤, 〈POWER〉 가사 중에서 -



\*좌) G-드래곤 앨범, 위버멘쉬(Übersch)  
우) 위버멘쉬(Übersch), 니체 저/ 어나니머스 역/떠오름 출판사.

시대정신 읽기 - being이 아닌 becoming의 세계관으로 2

: 컬렉터는... 일반적이고 평범하며 관습적이고 뻔한 이미지가 아니라, 낮은 차이를 지닌 예술가를 찾고 있고 만나고 싶고, 그의 작품을 향유(享有)하고 갈구(渴求)한다. 제대로 된 컬렉터들은 그런 작가와 작품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 백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손자병법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흔한 개념을 작가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작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작가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만의 세계를 표방해야 한다. 만일,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복구해야 한다.

니체 사상의 Key-Word인 독일어 위버멘쉬(Übersch)를 직역하면, "인간을 넘어선 자", "초월한 인간"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Über + Mensch = Übersch)

독일어 Über는... ~위에/~를 넘어/초월하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over의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이며, Mensch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위버멘쉬는 니체 사상의 핵심인 초인을 말한다. 이때의 초인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초강력 파워를 가진 슈퍼맨 혹은 단순한 '강한 인간'이나 '영웅'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기존의 인간 조건과 가치를 '넘어서', 가치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인간상',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존재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Übersch = 인간을 넘어서는 자 = 초인 = 자기 극복과 창조의 존재 = 예술가. 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이여, 초인(Übersch,超人)을 선언하라!

K-Pop의 중심으로 돌아온, G-드래곤의 새 앨범 이름이 〈위버멘쉬(Übersch)〉다. GD의 행동 하나하나를 M.Z세대와 알파(α)세대의 트렌드를 바꿔놓는다. GD는 걸어다니는 문화고 아이콘을 넘어 어떤 이에게는 신(神)과도 같은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악물 스캔들로 한때 주춤했으며, 그 후유증과 긴 공백기간은, BTS의 군 입대· 뉴진스 파동...등과 결합하여, K-Pop 위기설 진앙지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카이스트의 교수로 초빙되더니, 7년 4개월 만에 낸 앨범이 〈위버멘쉬〉인 것이다. 앨범에 실린 곡들 중 대표적인 〈POWER〉의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보면, 변화의 생성을 받아들이는다는 니체의 'Becoming'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작품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POWER〉는 중독성 강한 비

트에 랩이 더해진 힙합곡으로 GD의 '나는 나로서 충분히 아름답다'는 Free-Will의 자기 선언이며, 음악으로 되찾아가는 권력 의지와 팬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초월을 완성하는 자기공정 퍼포먼스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나를 회복하고 선언하는 예술적 권력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가득 차, 듣는 이에게 강렬한 에너지와 사유를 선사하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GD의 화려한 컴백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회복'인 것이다.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내세우니, 그가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된 것이다. 유명한 BTS RM의 유엔 연설 핵심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 역시,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게 뭔가. '나는 나다워야 한다.'는 절대명제를 항상 가슴에 담고 다른 이들과의 두드러지는 차이(difference)를 찾아야 하고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becoming

의 예술은 어떠한가? 그것은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 혹은 시대정신과의 교감이 작품에 담겨야 한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Marina Abramović, 1946~)가 떠오른다. 그녀는 '현대미술계의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예술가로, 매번 화제가 되었던 충격적인 수많은 퍼포먼스를 통해, 인간사적인 감정을 초월한 예술가로, 그 어떠한 현자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듯한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그녀의 2010년 뉴욕 MOMA 퍼포먼스 〈The Artist is Present〉는, 일생동안 becoming의 세계관을 작품에 쏟아붓고 있는 그녀의 작품들 중, 대중적으로 특히 화제가 되었던 퍼포먼스다. 그날...전시장 한 가운데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 그녀가 의자에 앉고, 맞은 의자에는 관객 누구라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붉은 옷의 그녀는 눈을 감고 있다가, 기다리던 관람객들이 한 사람씩 앞에 앉으면, 눈을 떠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가만히 응시하고, 참여한 관람객들은 울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는 다양한 표정들과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신사가 걸어와 앉았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그 어떤 관람객에게도 반응하지 않던 그녀가 당황과 미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한숨, 어느 순간 그녀의 두 눈은 충혈되며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가만히 두 손을 내밀어 그 신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며 그곳은 박찬 감동과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함께했던 옛 연인이자 옛 동료인데, 그렇게 그 공간은 그들의 조우에 열광하며, 박제된 being이 아닌 becoming의 던전/게이트가 되어 버렸다. (to be contin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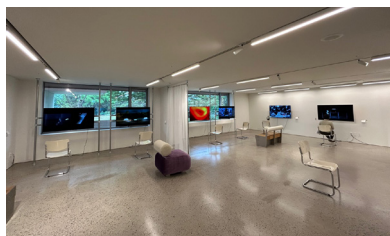
김성현 학술평론분과 회장

# 공간의 숨결을 깨우는 미디어 아트의 파장

## 디지털 감각으로 재해석된 도시, 부산이 다시 깨어나다

문화공간-루프 랩 부산 전시 | Loop Lab Busan Exhibition

기억과 예술, 기술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루프 랩 부산'과 지역  
문화공간들이 만들어낸  
미디어 아트 공동체의  
새로운 실험



'무빙 온 아시아' 루프 랩 부산 연계전시가 열린 도모현.



'토니 아워슬러展' 루프 랩 부산 연계전시가 열린 F1963 석천홀.



'박물관 미디어 아트를 만나다' 루프 랩 부산 연계 전시가 열린 부산박물관.

부산 루프랩 전시는 공공 및 사립 미술관, 대안 공간, 갤러리를 포함한 약 26개의 문화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 협업 프로젝트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플랫폼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전시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루프 랩 부산 포럼'과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 전문 아트 마켓인 '루프 랩 부산 페어'도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지역성과 국제성이 어우러진 협력의 장으로, 세계적 수준의 큐레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교류와 예술적 혁신을 촉진했다. 전시 기간 동안 모든 참여 기관은 하나의 공동체적 연합체로 기능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안미술 축제를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부산 전역의 문화 예술 공간, 공공 기관에서 펼쳐지는 전시를 통해 영상, 설치 미술, 가상 현실(VR), 퍼포먼스, AI 기반 미디어 아트 등 동시대 디지털 아트의 다양한 양상을 경험 했으며, 이를 통해 부산이 디지털 창작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부산시립미술관 야외광장  
디지털 서브컬처 : 모두가 창조  
모두가 창조자 Digital Subculture:

Everybody can be a Creator

부산시립미술관 야외광장에서는 신매체 예술이 우리 삶에 침투하며 일으키는 변화를 실험하는 전시 <디지털 서브컬처: 모두가 창조자>가 열렸다. 전시제목인 <디지털 서브컬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도하는 비제도권 창작 흐름을 의미하며, 오늘날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을 반영한다.

전시는 전통적 미술관의 제도적 틀과 디지털 플랫폼상의 자율적 자기표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대의 '자기개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되는지 조명했다. 아울러 감각과 정보의 그물망처럼 작동하는 스크린이 오늘날 어떤 미적 가능성을 창출하고 해체하는지를 질문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공적 실천을 모색했다.

도모현

무빙 온 아시아 Moving On Asia

도심 속 걸으며 머무는 산책의 시

간을 제안하는 복합문화공간 도모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각국 33여 명의 예술가와 이론가가 참여한 전시 및 포럼 <무빙 온 아시아>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무빙이미지 아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그 방향성과 잠재력을 함께 탐색하는 장이 되었다.

부산박물관

양정웅, 이이남 Apollo, Lee Lee Nam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부산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연구·보존하는 부산박물관에서는 연출가 양정웅과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미디어아트 2인전이 펼쳐졌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기술,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사공간 속으로 관람객을 초대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화와 영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연출가 양정웅은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감미디어 영상 작품 <엑스(X) 미인도>를 통해 조선 시대 일상을 생동감 있게 구현했고,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는 자신의 DNA 데이터를 산수화와 결합한 <DNA 산수>를 포함해 총 4점의 영상화화 작품을 선보이며, 김홍도·겸재 정선 등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관람객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되며 안과 밖이 맞물리는 독특한 장소성을 지닌다.

이번 전시는 한국-핀란드 국적의 아티스트 듀오인 나나와 펠릭스의 개인전 <땅거미가 지는 곳>으로, 동

영상, 사운드, 조명이 긴밀히 연결된 미디어 설치를 통해 분리 불가능한 자연-인공의 풍경, 그리고 끝없는 개발을 향해 밀려오는 철거 직전의 시간을 비추었다.

작은 공간 내 구획된 다양한 코너들은 작업 공간의 형태에 따라 설치되어 빛이 커졌다 꺼졌다 각기 다른 감각을 유도한다. 또한, 조명과 다락 안쪽으로 놓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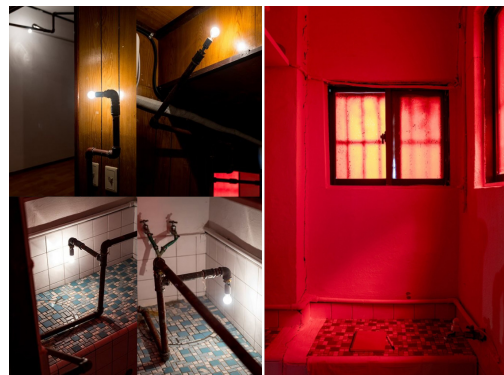
사운드 작업은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만들어져 하여금 직접 관람자에게 숨을 쉬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공간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특히 빨간 조명이 설치된 부엌 공간은 연극 조명 필름을 활용해 표현했다. 공간 속 한 겹의 빨간 필름이 드리워 질 때, 그 필름을 통해 일상 공간을 다시 보는 경험을 느낄 수 있어, 그 순간 감각은 확장되고 시선은 질문이 된다.

루프 랩 부산은 도시 곳곳의 공간을 하나의 숨결로 엮으며, 기술과 감각, 기억과 가능성의 경계 위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예술로 다시 깨어나는 방식을 기록하고 제안했다.

이러한 흐름은 부산시청 미디어월, 부산문화회관, 영화의 전당, 김해 공항, 공공기관, 교육기관, 실버문화커뮤니티시설, 실험적 대안공간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장소들이 하나의 연결망 속에서 미디어아트라는 언어로 소통하며, 루프랩 부산의 확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기술이 예술과 만나 공간을 다시 쓰고, 감각을 새롭게 깨우는 순간 도시는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



(왼쪽) 루프 랩 부산 연계전시 '땅거미 지는 곳' 나나와 펠릭스 작가 전시가 열린 영주맨션.

F1963석천홀

토니 아워슬러 전 Tony Oursler Exhibition

부산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뉴욕 기반의 미디어 아티스트 토니 아워슬러의 전시를 F1963 전시장에서 선보였다.

토니 아워슬러는 비디오, 조각,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작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이번 전시작 <락 2, 4, 6>(2010)은 각기 다른 이미지들이 대형 나무 판넬에 투사되어 관람객이 그 사이를 거닐며 이미지 관계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구성되었다.

작품은 심리학자 피터 왓슨의 확증 편향 검증 실험에서 착안된 것으로, 단순한 수열의 규칙을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인식의 편향을 드러냈다. 아워슬러는 이를 통해 고정된 시각과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영주맨션

땅거미가 지는 곳 Tending to Dusk

부산 중구 영주동의 옛 아파트를 개조한 전시 공간 '영주맨션'은 사적인 공간이 공적예술 공간으로 전환

## 2025 문화 경청 간담회 개최



5월 9일 오후 2시 금련산역갤러리에서 2025 문화경청 간담회가 열렸다.

5월 9일 오후 2시 금련산역갤러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연구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 시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2025 문화경청 「시각에

술(미술)분야」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예술·미술 분야 예술인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예술계, 시민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부산문화의 새로운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문화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13명(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정책팀장, 문화예술지원팀장, BDI연구원 등),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 및 관계자 5명, 부산미술협회이사장 및 소속 작가10명 등(노영효, 김종택, 신상용, 이지운, 신무경, 곽태임, 정경이, 노주련 작가)이 참석했다.

특히 2024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박순곤 부집행위원장, 독립기획자 서상호, 작가 정혜련, 손몽주 등이 참여해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 안건에 대한 현실적이고 밀도 높은 논

의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역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과 지역 대학의 역할 ▲부산 비엔날레의 글로벌 역할과 시민과의 소통 방안 ▲미술 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시 문화의 활성화와 작가들의 적극적인 소통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대해 다루었다.

부산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원 규모 및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유의 지역자원 발굴·지원·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 복지 증진 및 문화다양성 재고를 위한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지역내·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예술인, 생활예술인, 문화기관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문화경청을 포함한 총 9회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및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술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2025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 OPEN MATCH展 우수작가 선정

제13회 청년작가展  
최우수 청년작가에  
옥진화 · 박기원 · 장유재  
선정

부산지역 청년 미술인들의 꽃인 ‘2025 제13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전이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됐다. 사)부산미술협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공모에 참여한 부산지역 청년작가들을 선별하여 전시회를 열었다.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 청년작가 오픈매치전은 1부-5월 20일부터 24일까지(공예, 조각), 2부-5월 27일부터 31일까지(서양화 1, 판화), 3부-6월 3일부터 7일까지(한국화, 서양화2)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와 부산 소재 대학교에서 미술 계열을 전공한 만 40세 이하 청년작가 45여 명이 참여해, 최우수 청년작가에 옥진화(판화), 박기원(공예), 장유재(한국화) 작가가 선정되었고, 우수 청년작가에는 조효진(공예), 최세윤(조각), 홍민수(공예), 김지우(서양화) 작가가 선정됐다.

최우수 청년작가로 선정된 옥진화 작가는 동아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판화 전공을 수료하였으며, 최근 이어진 금샘미술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교류전부산프랑스문화원아트스페이스 ‘위장환경주의-



옥진화\_HEINEKEN-M1 LED\_29x41cm\_led, digital print, mix media\_2023.

예쁜쓰레기’ 개인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옥 작가의 작품은 대량 생산과 과잉 소비가 초래한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산업화 이후 무분별하게 증가한 자원 사용, 식자재 남용, 소비를 위한 소비, 이러한 모든 과정이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오염된 환경, 책임 없는 폐기, 무관심이라는 방관의 태도를 더욱 세련되고 풍자적인 조형적 언어로 환기한다. 디스플레이 방식, 제목, 내용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그의 전시는 관객이 자신의 일상적 소비 행위를 낯설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장치이자 사유의 공간이 된다.

박기원 작가의 작품 속 거칠고 불규칙한 표면 위에는 비와 바람, 발걸음의 기억이 고여 있다. 작가는 그것을 ‘유연한 흠집이 아니라’ 시간이 새

긴 상처라 불렀다. 그 흔적 속에서 그는 잊혀진 기억의 언어를 읽기 시작했다.

박 작가는 길 위의 돌을 수집해 그 돌들이 품은 시간을 응시하며, 자신의 또 다른 매개체인 도자기 위에 돌을 얹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에게 도자기는 단지 형태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흙은 처음엔 유연하지만, 불을 만나며 굳는다. 그 안에는 손의 온도, 불의 흔적,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스며든 기억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거칠고 단단한 돌과 부드러웠다 단단해진 도자기는, 상반된 성질이지만 기억을 품고 돌을 놓음으로써 지나간 시간과 사라진 기억이 어떻게 오늘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또한, 최우수 작가로 선정된 한국화가 장유재는 목원대학교 한국화



박기원\_부산 해운대구 우동 1413-5\_36x36x35\_백자토\_2024.

전공,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입체과를 졸업하고, 하나의 장르와 정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단지 ‘무엇을 보았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과 그것을 둘러싼 구조에 대한 해체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명화’ 시리즈는 ‘나라’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그 원자적 구성 요소를 국민과 역사로 간주했다. 작가는 이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정의를 ‘이름’이라고 보았다.

그가 붙인 ‘이름’은 단 한사람의 고유한 정의이자, 각각의 서사를 담은



장유재\_ 景京(민경). 한지에 분채. 55.3x33cm. 2023.

개념을 통해 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는다. 한 글자, 한 음절 속에 담긴 시간과 본질을 풀어내며 작가는 상상과 현실이 겹쳐지는 한 폭의 이야기로 옮긴다. 이처럼 장 작가의 작업은 풍경에 대한 기록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정체성과 감각의 재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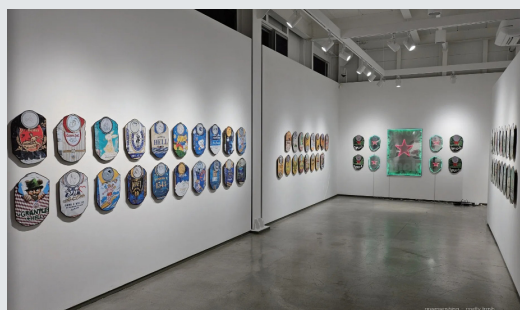
한편, 올해 청년작가전 우수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가 7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우수 작가로 선정된 작가의 초대전은 2026년 1월중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Close Up 34



청년작가 옥진화

##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버려왔는가



Greenwashing-Pretty trash 작품 전시전경 사진.



생산과소비 시리즈\_84x11x118.9cm\_led, digital print, mix media\_2023.

넓은 스펙트럼으로 문제를 바라본다. 담배와 술처럼 무익하지만 이익이 되기에 유지되는 생산과 소비 구조, 그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비 속에서 살아간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다음 날 문 앞에 도착하고, ‘가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비는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산업화 이후의 세계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분명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언제부터인가 과잉이 되었고, 현대 사회는 ‘필요’가 아닌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작가는 이 같은 시대를 ‘생산을 넘은 생산, 소비를 넘은 소비’의 시대라 지칭한다. 이처럼 무심히 지나쳐 온 인간의 이기심과 방관을, 매끄럽고 냉정한 시선으로 조형화한다. 마치 ‘이전’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문득, 익

숙한 소재와 비판적 메시지를 매체 안에 고요하게 새겨낸다.

작가는 작품이 인간의 가치 판단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환경, 전쟁, 경제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단지 ‘정보’로만 소비되는 현실 속에서, 작가는 방관이라는 태도를 조형적 언어로 직면시킨다.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과장되고 가식적인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며, 그 속에 작가로서의 역할을 투사한다.

대표적인 연작 ‘생산과 소비’, ‘예

쁜 쓰레기’로 이어지는 두 개의 프로젝트 시리즈는 소비 시스템의 명암을 드러낸다. 산업화 이후 비대해진 생산과 소비 구조 속에서,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어떻게 흐려지는지를 고찰한다. 대량 생산된 가축, 무분별한 식자재 공급, 그리고 소비 후 남겨진 쓰레기들. 이 모든 흐름이 우리 삶의 편리를 가능케 하지만, 정작 그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묻는다. “소비 이후에 우리에게겐 무엇이 남았는가?”

이 시리즈는 식품 시스템 유흥 상품, 나아가 정부의 세금정책 등

안에 내재된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그 결과가 삶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중의적이고 열린 구조로 설계된 작가의 작업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품는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단순한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 시스템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가 놓친 윤리적 균열을 집요하게 응시하는 작가의 작품은 말한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HEINEKEN-M3\_ 나무에 디지털 프린트, 믹스미디어, 28 x 41cm, 2024.

- 2014 동아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판화) 졸업
- 2025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3회 청년작가展 최우수청년작가

- 개인전  
2024 ‘옥진화-디오나’ 콜라보레이션 (전주, 디오나) ‘위장환경주의-예쁜쓰레기’ (부산, 부산프랑스문화원 ART SPACE)  
2023 ‘위장환경주의-예쁜쓰레기’ (서울, 갤러리외출판)  
2022 ‘생산과 소비/ 생산 과소비’ 옥진화 초대전(부산, 스타필드 시티 명지 작은미술관)

- 단체전  
2025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파이프 특별 교류전 (부산, 금샘미술관)  
2024 ‘UNDER39’ 아트페어 (부산, 신세계백화점)  
2023 ART\_Conetact Metaverse: [Me and another me] (부산, 시민화관) 부산현대미술가협회 초대전 (부산, 스타필드 시티 명지 작은미술관)

## 존재와 기억의 꽃을 피우다

4월 30일~5월 30일, 갤러리 이듬



한국화가 김정우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을 매개로 ‘중첩된 시간의 정원을 그려내는 김정우 작가의 개인전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갤러리 이듬에서 열렸다. 김 작가는 전통 한지 위에 수용성 아크릴 과수 물감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동일한 화병에 담아 촬영한 후, 디지털 이미지 편집 기법인 레이어 겹치기를 활용해 꽃 이미지를 투명하게 중첩함으로써 ‘시간의 축적’과 ‘공간의 중첩’을 동시에 구현했다. ‘Season’ 시리즈는 한지라는 전통 재료 위에 현대적 디지털 기법을 접목시켜 한국화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완성된 작품은 단순한 꽃의 형상이 아닌 ‘집적된 시간’과 ‘겹쳐진 기억의 풍경’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작가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근원과 연결된 잃어버린 기억들과의 결부”라며, 현대인이 자



season20254 \_100 x 86cm\_ 한지에 과수, 2025.

연으로부터 분리되어 겪는 고독과 외로움을 다시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륜동 작업실 주변에서 계절별 꽃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작된 작가의 작품은 인간의 복합적 감정을 자연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투영한다. 이를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인간 내면의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을 아름답고 세련된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시간의 흐름 속에 스며든 삶의 무게와 빛남을 조용히 노래한다.

## 촉각의 시선, 종이의 숨결

4월 25일~6월 10일, 복병산 작은미술관



서양화가 이견희

복병산 작은 미술관에서 4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가시적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이견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전통 매체인 한지를 통해 촉각적 시각성을 탐구해온 작가의 매체 연구 작업이 집약된 전시로, 한지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거칠게 표현한 평면작품 25점과 설치작품 1점을 선보였다. 이 작가는 기록 매체로서의 종이, 그리고 기술 발전 속 변화하는 형태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AI시대의 이미지가 다시 물성으로 회귀하는 흐름에 주목하며, 시각과 촉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각적 표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닥나무로 만든 한지의 물성을 거칠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업들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감각 요소를 통해 시각 미술의 한계를 확장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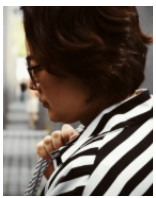
Daimon1 \_수제한지, 아크릴, 바느질 \_230 x 160cm, 2024.

이번 전시작품들은 한지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형태 변형 가능성을 활용하여, 평면과 입체 사이를 넘나드는 가변적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마치 자연의 이미지처럼 유기적이고 감각적인 인상을 남겼다.

이 작가는 “한달 넘게 중앙동 구도심을 거닐며 이 골목들이 문화골목으로 되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장소의 특성과 역사가 담긴 공간에서의 경험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앞으로도 촉각적 물성의 매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 굴리고 비추며 살아내는 날들

5월 3일~25일, 복합문화예술공간



영상설치가 노주련

지난 5월 3일부터 25일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에서 노주련 작가의 초대 개인전 ‘구르기 좋은날!’이 열렸다. 어린 시절 딱지에서 출발해 반짝이고 조형적인 큐브형태로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온 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미려 벌룬 큐브를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와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롤링 큐브(Rolling Cube)’라 일컫는 이 작업은 유럽 각지를 비롯해 부산 도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생은 결국 구르며 살아내는 것’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의 메시지를 관객과 공유한다.

특히 5월 10일에는 전시장 안에서 설치되었던 벌룬 큐브를 부산대학교 인근 야외로 이동시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함께 구르기를’ 진행했다. 이처럼 관객들이 직접 큐브를 굴리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예술, 그리



Rolling of Sad Memories, 1920 x 1080p, 02:40, 2024.

고 사람 간의 연결과 치유가 함께 표현되었다.

이번 전시는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 폴란드 포츠난 광장 등에서 진행한 노 작가의 기록 영상과 설치 작품이 함께 구성돼 삶의 무게와 희망을 굴리는 행위로 풀어낸 설치미술 프로젝트로 초대했다.

“인생은 각자 굴리는 큐브 같다”는 노 작가의 작품 속 무게를 끌어안되 주저하지 않고, 희망을 반사하며 나아가는 태도와 그 철학은 이번 전시 전반에 따뜻하고 유쾌하게 녹아있다.

## 비춰진 형상에 깃든 실체의 변주

6월 10일~21일, 이젤갤러리



서양화가 김종택

오랜 시간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양화가 김종택 작가의 개인전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수영구에 위치한 이젤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기억의 정원’으로, ‘기억은 자라고, 흩어지며, 사라지고, 다시 드러나기를 반복한다. 이는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 남겨진 흔적이며, 김 작가는 나무와 그림자를 풍경 속에 깃든 감정과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

이번 전시는 ‘정원’이라는 공간적 은유를 바탕으로, 200호, 100호 대작을 중심으로, 50호 크기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아크릴 물감을 주 재료로 사용한 작품 속 비춰진 형상들은 단순한 반영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

에 숨겨진 본질과 실체를 탐구한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내 작업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관계’였다. 그 표현 방식과 소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초기에는 물리적·생물학적 관계를,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내면에 집중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존재의 본질적 정신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의 이러한 철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탐색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시소감을 밝혔다.



3869\_기억의 정원\_162x122cm\_ Acrylic on canvas\_2025.

## 완벽에서 벗어나 허용으로

6월 8일까지 1차, 7월 6일까지 2차 전시, 낭만시간 연구소



조각가 변대웅

초량동의 작은 전시 공간 낭만시간 연구소가 개관 1주년을 맞아 ‘당신이 몰랐던 변대웅’이라는 기획전시를 3관에 걸쳐 선보여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1차 관람 기간을 마친 뒤,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2차 전시로 이어진다.

완성도 높은 곰 캐릭터로 대중에게도 친숙한 변대웅 작가의 그간 전시와 달리, 이번 전시는 제목처럼 작가의 내밀하고도 변화된 면모를 담아낸다. 이번에는 드로잉과 부조, 질감 있는 조형물 등 더욱 자유롭고 인간적인 창작물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어린 시절 좋아했던 캐릭터를 그린 스케치 작업들과, 눈에 띄

는 조각 작품 ‘불시착’은 파스텔톤을 벗어난 형광색으로 표현되어, 작가의 도전적인 시도를 보여주며 작가의 내면과 감성을 더욱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의 조각 작품들 또한, 작가 특유의 양감과 캐릭터 중심의 조형성을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유연하게 확장되는 창작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은 허술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완성도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작가의 ‘오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불시착, 23 x 20 x 30cm, Resi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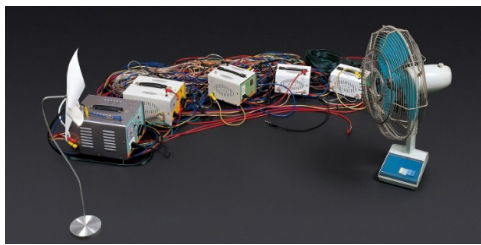
## 불완전한 세계를 향한 미디어 아트적 성찰

4월 22일~5월 2일, OKNP 부산

동아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기 작가는 ‘인식 버릇없는 씯덩이들’ 작품으로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받으며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세상은 생각보다 허술하게 돌아간다’를 출품해 송은미술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작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루프랩 부산’ 기간에 맞춰, 이광기 작가를 초대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OKNP에서 열렸다. 부산시립미술관, 루프랩 부산이 협력한 이번 전시에서는 ‘세상은 생각보다 허술하게 돌아간다’를 제목으로 하여, 이 작가의 작품세계를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네온사인과 전광판을 이용한 시리즈와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관람자의 모습을 실시간 촬영하는 신작과 더불어 다양한 작업을 대



세상은 생각보다 허술하게 돌아간다\_선풍기, 바람개비, 변압기 등 혼합매체, 가변설치\_2009.

거 선보였다.

이 작가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외형을 가진 작품들을 통해 미디어 아트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사회에 대한 도발적인 문안들은 네온과 전광판으로 기록해 온 그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돌아켜보며, 시각예술가로서 동시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질문을 던지는 미디어 아트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33회 부산한국화전, 부산·울산 현대 한국화 특별교류전

6월16~22일 부산시청 2·3전시실,  
7월 1~6일까지 금련산갤러리

부산한국화협회가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가 후원하는 제33회 부산한국화전-부산·울산 현대한국화 기획특별교류전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청 2·3전시실에서, 이어 7월 1일부터 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한국화분과 소속 작가 및 울산 지역 작가 총 190여명이 참여해 1인당 30호 이내 1점씩 총 190점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수묵화, 채색화, 민화, 현대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한

국화의 흐름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이번 전시는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이번 교류전은 청년작가의 참여확대와 함께 지역미술계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한국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시계방향순)대표전사작품 사진\_장익만, 최추자, 이재진, 김흥식.

2025 부산공예예술제 개최

5월 15일~26일, 한새갤러리 전관

부산미술협회 공예분과의 '공예:접경 공간'을 주제로 한 2025 부산공예예술제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새갤러리 전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예의 본질과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122명의 공예 및 미디어 아트 작가가 함께해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공예와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과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형태를 선보였다. 5월 15일 본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개막식과 함께 식전 행사로 '창조적 협업: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예술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예술의 협업 가능성을 다루

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다루는 정희진 강사의 특별강연이 50분간 진행되었다. 또 2025 부산공예예술제 포스터와 아트마켓 '카카마켓' 포스터.



2025 부산공예예술제 포스터와 아트마켓 '카카마켓' 포스터.

한새갤러리 앞마당에서 공예작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판매하는 플리마켓 'CACA마켓'이 열려 관람객들이 수공예 작품과 아트상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부산판화가협회 '이토록 평범한 의심에 관하여展'

5월 19일~6월 7일, 이젤갤러리

이젤갤러리 10주년을 맞아 기념초대전으로 부산판화가협회 기획전시가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사진과 판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결합한 실험적인 전시로, 일상의 틈새에 존재하는 '익숙함 속 의심'을 주제로 선보였다. 익숙한 풍경 속 낯선 감정, 너무도 자연스러워져 버린 의심에 관한 시선의 기록들로, 단순한 재현을 넘은 사진과 판화매체를 통해 정지된 이미지와 잠재된 무의식의 충위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7명의 참여 작가들은 인

물, 사물,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감정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질문들에 관하여' 전시전경 및 포스터.



부산판화가협회 '이토록 평범한 의심에 관하여' 전시전경 및 포스터.

2025 제4회 G-ART 국제정기전 열어

5월12~17일, 부산시청 2, 3전시관

사단법인 G-ART 부산협회(회장 강동석)는 오는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부산시청 제 2, 3 전시관에서 제4회 G-ART 국제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번 전시는 부산, 경남, 울산, 양산 등 지역 작가들과 3개국 해외 작가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서양화, 조각, 판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10호 규격 작품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 사단법인 G-ART의 부산지회로 출발하여 부산 지역 서양화 작가인 강동석, 박정숙, 박형필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전을 열었다. 이후 매년 지역과 세대, 장르를 아우



제4회 G-ART 부산 정기전 (왼쪽)전시도록표지, (오른쪽)전시장 전경사진

르는 전시를 통해 부산 미술계의 발전과 외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 왔다. 2025년 현재, 총 회원 수는 약 150명에 이르며, 서울, 경남,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작가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회 동래미술협회 정기전시회

6월 16일~20일, 동래구 신청사 1층

오랜 각고 끝에 재정비를 마친 동래미술협회의 정기전이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래구 신청사 1층 특별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역사와 충절의 본향 동래에 장구한 세월 속에 새롭게 건설된 동래구신청사의 건립을 축하하고 동래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동래출신 작가들이 한뜻을 모아 개최하는 기념비적인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동래구신청사의 1층에 마련된 특별전시관에서 10호 이내의 다양한 표현방식의 60여점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정기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동래의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열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동래미술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뿌리를 지키고 예술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담아 내며, 동래구민과 더 넓은 관람객에게 예술적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전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3회 동래미술협회 정기전 도록표지.

제53회 부산창작미술협회 정기전

6월 25일~29일, 금련산갤러리

부산 창작미술의 전통을 이어온 부산창작미술협회가 올해로 제53회 정기전을 맞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1983년 창립된 부산창작미술협회는 부산 미술계의 토대가 아직 굳건하지 않았던 시절, 창작과 독창성을 중심으로 둔 예술운동을 지향하며 출범했다. 초대 회장인 김원을 시작으로 이석우, 추연근, 양철모, 김용달, 박옥남 그리고 현재 김명수 회장에 이르기까지 부산창작미술협회는 '독창적인 미술 창작'이라는 정체성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53회 정기전에서는 34여 명의 회원 작가



제53회 부산창작미술협회 정기전 도록표지와 대표 전시작품.

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가 내세운 창립 이념처럼 예술의 본질인 '창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도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2025 신우회 소품기획전展

6월 14일~22일, 다시보는 광복화랑

이번 기획전은 11월에 개최될 제64회 정기전의 프리뷰 성격을 띤 소품전으로, 신우회원들 개인의 과거작과 최근작 각각 1점씩 총 2점의 소품과 작가 노트, 그리고 에세이를 함께 배치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온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가 열린 광복화랑은 1973년 신우회가 시작된 광복동이라는 지리적 상징성과도 맞물려 뜻 깊은 의미를 지녔다. 신우회 이동우 회장은 "현재 우리 미술계에는 작고 작가에 대한 아카이빙 사업은 있으나, 현역 작가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전시 형태는 드물다"라며 "이번 전



2025 신우회 소품기획전 포스터 및 전시장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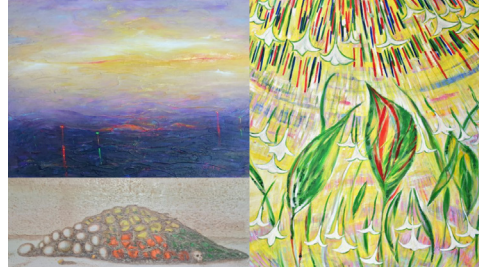
시는 신우회 회원들의 사료적 가치와 개인 미술사를 조명하고, 작가 개개인의 현재 위치를 성찰하는 기회이자 앞으로 작가로서 나아가 할 길을 모색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 제27회 녹향회 정기전

7월 6일~13일,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

부산의 예술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녹향회가 오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에서 제27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1998년 창립된 녹향회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원로부터 청년 작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창작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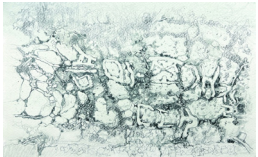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닌 삼포지향의 정신문화를 예술을 통해 시민과 나누고, 일상 속에서 문화적 활력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녹향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구상 및 비구상 작품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



제27회 녹향회 대표 전시작품.

회와 예술의 본능적 감동을 일깨우고자 한다. 특히 각기 다른 시각과 개성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부산 미술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 문화 향유의 장으로서 관람객에게 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전할 예정이다.

슬픔이 쪼개질 때  
4.24~5.15 허먼갤러리



이번 전시는 문지현, 이태훈 작가의 2인전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바닥'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가장 가까운 바닥에 대한 기억을 재해석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바닥에서 피어난 두 개의 시선을 따라가는 여정을 그려냈다. 문 작가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바닥을 바라보며, 시간의 흔적을 품은 재료를 통해 사라져가는 것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이 작가는 바닥을 응시함으로써 투박하고 거친 바닥조차 존재의 의미를 마주할 수 있는 숭고한 감정과 사유의 확장을 느끼게 했다.

50년, 그림인연展  
5.5~5.11 부산광역시청 제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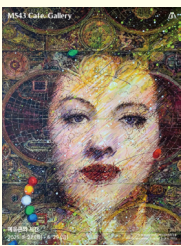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50년 동안 이어져온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인연과 배움, 가르침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975년, 김박은터 작가는 김용달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팔을 잃은 아픔을 주제로 한 평면 작품을 통해 미술계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의 힘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제자와 스승의 특별한 관계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전시가 이어졌다.

양서윤 개인전 '별뿔:빛과 그림자의 풍경'  
5.20~6.15 솔트갤러리



양서윤 작가의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장면 에 따른 느낌을 따라가는 시선이다. 익숙한 일상 속 공간이지만, 그 속에 은근히 스며든 감정과 시간이 축적되어 있다. 작가는 그것을 단지 재현하지 않고, 기억의 색으로 바래고 변형해 담아낸다. 이로써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감각과 감정의 레이어를 덧입힌 채 관람자의 내면을 두드린다. 이처럼 양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기억'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 빛이 남긴 조용한 흔적들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예유근의 시간 초대전  
5.27~6.29 M5453



이번 초대전은 작가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정제된 추상 회화의 초기작부터 '자연과 시간, 인간'을 주제로한 중기작,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영웅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작가적 철학과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는 하나의 시각적 연대기이다.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실험적인 기법과 강력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가 특유의 조형언어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냈다. 표현주의적 에너지, 서사적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교차했다.

단잠  
2025.5.31~2025.7.31 딥슬립커피



딥슬립커피에서 열리는 전시 <단잠>은 바로 그런 '깊은 잠'의 상태, 무의식과 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세 명의 작가 김문정(sweet), 손몽주(deep), 이동재(sleep)는 각자의 조형 언어로 감각의 층위를 탐색하며, 마치 하나의 꿈결처럼 이어지는 전시를 만들어냈다. 이 전시는 관람자에게 '머무는 감각'을 제안한다. 현실과 무의식의 틈 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각의 층위를 천천히 깨우며, 지금 이 순간 '단꿈'을 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5인의 동행전  
6.15~7.1 화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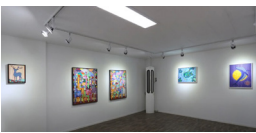
화인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강동석, 김중구, 성현섭, 이인철, 정희욱 다섯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고유한 시선과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업들을 선보였다. 평면작업은 10호에서 30호 크기의 4~5점씩, 입체작품은 드로잉을 포함한 총 4~5점으로 구성했다. 회화, 조각, 드로잉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들의 작품세계는 서로 다른 궤적 속에서도 묘하게 공명하며, 관람객에게 삶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동행이란 무엇인가를 조용히 되묻는다.

홍익중 개인전  
4.29~5.25 M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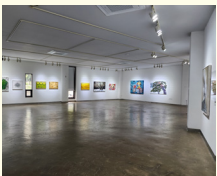
작가의 작품 속 푸르른 소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의 묘사를 넘어,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간직한 나무의 자태로 삶의 의지와 환경을 극복하려는 강인함, 그리고 끝없이 확장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치환된다. 이번 전시는 일상과 자연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소나무라는 오래된 상징을 통해 삶과 인간, 자연에 대한 사유를 환기시키는 시각적 언어로 작용했다. 그의 판화는 상징과 은유, 풍자를 통해 자연을 재창조하며, 단순한 감상의 영역을 넘어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응시로 관람자를 이끌었다.

양정진 초대전 'In the free flow'  
5.5~5.31 까메오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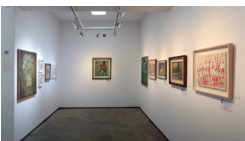
바다의 유영하는 거북이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번 전시는 자유롭고 평온한 감성을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생명과 감정의 흐름을 조형적으로 풀어냈다. 양 작가는 Woodcut Acrylic on wood 기법을 활용하여, 형상화된 동물의 모습과 반복적으로 확장된 패턴 속 단순한 외형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 구조와 존재의 본질에 의문을 던진다. 처음과 끝이 다른 감정의 이미지"라는 사유에서 출발한 각각의 패턴은 하나의 감정 혹은 관계로 비유되며, 그것들이 확장되어 전체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삶의 본질에 가까워진다.

제14회 BF&A국제아트페어 프리뷰展  
5.21~6.23 재희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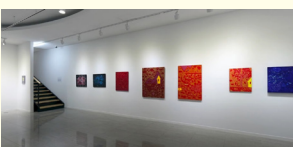
(사)부산미술협회와 (주)디자인하우스가 동시협업 개최하고, 해운대구에 위치한 갤러리 재희가 주관하는"부산미술: 흥으로 협업하다"를 키워드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중견 작가 25인이 참여해, 50호 이내 작품 35점과 100호 대형 작품, 조각 3점 등 총 40여 점을 전시해 제14회 BF&A 국제아트페어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리뷰 개최를 기념해 부산미술협회와 갤러리 재희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꽃피는 부산항 12회展  
5.29~6.30 미광화랑



이번 전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격변의 세월 속에서 예술로 시대정신을 형상화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했다. 특히 노후극의 1981년 작 '무제', 서성찬의 1950년대 작 '풍경', 전혁림의 '부산항'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함께 공개했다. 미광화랑 김기봉 대표는 "화랑의 사명으로 시대에 소외된 예술가들을 다시 조명하고, 그들의 예술을 미래 세대에 남기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전시 역시 과거의 가치를 되새기고 예술의 본질을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현섭展  
6.4~6.12 다시보는 광복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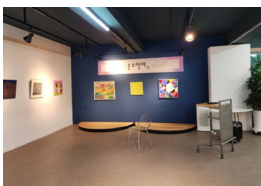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점을 찍는 행위 자체를 시간과 존재의 기록으로 삼아온 성현섭 작가는 점묘화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통해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대표작 'with earth'를 중심으로, 밤과 낮, 자연과 문명,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과 순환, 공존의 메시지를 시각으로 직조했다. 이번 전시는 성현섭 작가의 예술적 여정뿐 아니라 지역미술계의 정체성과 생태미학적 실천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22회 시선화전 '꿈은 이루어진다'  
6.16~6.22 부산예총 전시실 1,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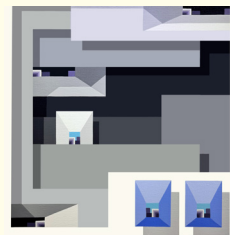
2003년 창립 이래, 22명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작품 및 전시활동을 이어온 시선회는 올해부터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여 좀 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 아래, 각 작가가 품어온 예술적 이상과 삶의 단면을 진솔하게 녹여낸 작업들로 구성되었다. 작가 개개인의 경험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체험을 캔버스 위에 옮겨 표현한 50호부터 100호 등 자유규격의 50점의 평면작품을 선보였다.

아시아미술협회&경남미술창작소 예술교류전-순수언어展  
5.1~5.10 갤러리휴



이번 교류전은 아시아미술협회 20명의 작가와 경남미술창작소 19명의 작가가 39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회원 각자의 능력을 교류하며 한 단계 발전의 계기로 삼고 지역의 미술을 확장시키고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교류전은 초대작가들의 폭 넓은 작품을 통해 예술적 공감을 나누고, 사회가 만들어놓은 '현상'안의 보편적 삶 속에서 작가 개인의 마음과 감성에 집중해 또 하나의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 체계를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표현해냈다.

문성원 개인전 '무한대의 시간 속에 잠시 머문다'  
5.20~6.14 성원아트갤러리



삶의 윤희함과 우주의 무한함 사이에서 '시간'을 주제로 한 내면적 탐구를 작품에 담은 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억, 상상, 그리고 감정의 층위를 회화적으로 풀어낸 다양한 작업들을 소개했다. 작품들은 한 개인의 기억을 기록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이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정서적 공감의 장을 제공한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이루고, 모든 시간의 경험은 결국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명문화축전 연계 전시 '생명, 영성의 동지'  
5.24~6.8 부산 사상구 일산수지



이번 전시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시작해 낙동강 지류를 따라 사상공단의 일산수지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산업, 예술과 영성이 교차하는 현장을 담아냈다. 낙동강 생태 탐방을 기반으로 도심 속 공간 하천이라는 낯선 풍경에 담긴 생명의 기적과 생태적 여운을 회화,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형화했다. 이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감각을 예술로 풀어낸 결과물이며 장소와 교감하며 생명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무경계 프로젝트 '안과 밖'  
5.30~6.18 복합문화예술공간MERGE



이번 전시는 "예술과 일상, 미술관과 거리, 작가와 관람자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주제로 삼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으로 예술의 무대를 확장하려는 실험적 시도였다. 우리가 서 있는 중심은 어디이며, 어떤 감각들이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지를 되묻는다. 9인의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공간과 감각, 시점의 경계를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관람자에게 열린 질문을 던진다.

스며드다 ; 감각의 결  
6.10~6.15 금련산갤러리



용두산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윤연정, 이수아, 서아은, 이규열, 안수아가 참여하는 전시로, 삶의 결을 감각하는 각기 다른 매체 회화, 공예, 일러스트, 디자인, 텍스타일, 언어-를 통해 작가들은 일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리듬과 시간을 펼쳐 보였다. 이들의 작업은 단순한 장르의 나열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감각들이 조용히 포개지며 만들어내는, 삶을 향한 다정한 응시이자 감정의 축적이다. 미묘한 떨림으로 다가오는 다섯 개의 감각은 우리 안의 감정과 마주하며 잔잔한 파장을 일으킨다.

2025 형맥아트쇼  
6.17~6.22 금련산갤러리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한 형맥회는 2024년부터 미니 아트페어 방식으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전은 박대원 원로작가, 권소연, 하익수 작가의 초대작품을 중심으로 형맥회 회원들의 철학과 인품이 담긴 작품을 구성하여 부스별 전시 방식의 관람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출품 작가로는 김기남 원로작가, 김미옥, 김선희, 김지영, 김충진, 노유나, 노재환, 류승선, 박성만, 서아희, 송협주, 신미라, 유선경, 이강운, 이동우, 이창남, 이충길, 이혜진, 이희영, 임정아, 진보미, 정경화, 최영수 작가가 있다.

전시 일정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협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 (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제29회 부산회화제 개최

지역 최대 규모 서양화 축제  
신진과 원로작가가 함께 빚어낸  
창작의 장  
부산 회화의 오늘과 내일을 잇다



2025 제29회 부산회화제 오픈식 현장 및 전시장 전경사진.

부산을 대표하는 서양화 축제인 제29회 부산회화제가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부산회화제 동행 2025展'으로, 부산미술협회 서양화 분과 소속 회원 작가

200명과 비회원 작가 1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예술적 연대를 모색했다. 1990년대부

터 이어져온 부산회화제는 부산미술협회 서양화 분과의 정기 회원전으로 단일 장르 미술전 가운데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정통적 전시 형식을 바탕으로 회원과 비회원 작가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예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부산 회화계는 세대와 소속을 넘어 함께 호흡하고, 창작의 지평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제29회 부산회화제는 부산 미술계의 역동적인 흐름과 함께 예술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역회화가 다시 한번 자신만의 언어로 '동행'의 의미를 자신

만의 독창성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지역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예술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지역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미래를 짊어질 신진 작가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며,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가고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회화제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축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의 작가상 공예가 최시복 · 청년작가상 한국화가 이지훈 수상기념전

7월 8일~13일 청년작가상,  
7월 15~20일 오늘의 작가상  
금련산갤러리

부산미술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과 청년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시복(공예)작가와 이지훈(한국화)작가의 수상기념전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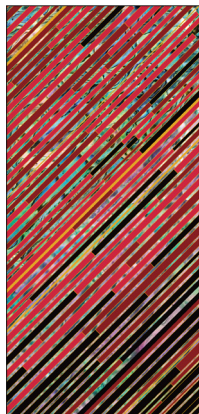
두 작가는 각기 다른 매체와 표현 방식을 통해 전통과 현대, 기술과 감성, 실험과 서사를 아우르며 부산미술의 오늘을 상징하는 창작 세계를 구축해왔다.

• 장인 정신과 현대미감의 만남  
본상 수상자인 최시복 작가는 고도



공예가 최시복

의 숙련도와 정성이 요구되는 전통 칠에 기법을 바탕으로 한 옷칠 공예 작업을 통해 동양적 미의식과 현대적 감각의 접점을 탐구해 왔다. 그의 작품은 수공의 섬세한 오랜 제작 과정을 통해



옷빛(The Light of The Spirit) - 옷 빛나전문 금태철도 \_197 x 420 x 40mm, 옷칠, 순금, 선팅, 안료, 2025.

완성되는 깊은 농담과 질감, 그리고 전통 문양에서 비롯된 단아하고 승고한 맛이 특징이다.

작가는 오랜 시간 천연 옷을 여러 겹 덧칠하고 갈아내는 고난도 공정을 통해 나무, 천, 금속 등 다양한 재료 위에 독창적인 표면과 색감을 구현한다. 전통의 맥을 지키되, 조형성과 쓰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랜 기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에 힘써왔으며, 지역 공예계의 저변 확대에도 꾸준히 기여해 왔다.

• 전통 위에 펼쳐는 부산 풍경과 현대적 서사  
청년작가상 수상자인 이지훈 작가



한국화가 이지훈

는 한국화의 전통 재료와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도시 풍경과 삶의 내면을 시적으로 풀어낸 회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작가는 전통적 먹과 채색을 이용하면서도 다리, 비행기, 달, 도시의 실루엣 등 현대적 오브제를 결합하여, 동시대적



TIMESLIP-blue hour (over the bridge) \_162.2 x 97cm, 한지에 채색, 2025.

인 감각과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의 대표작에서는 달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희망과 도전,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작가 고유의 상징체계이다. 또한, 푸른 빛이 강조된 화면은 도시의 차가움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확장을 암시하며, 보는 이에게 차분한 감동과 긴 여운을 선사한다.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넘나드는 실험적 태도와 함께,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젊은 작가의 에너지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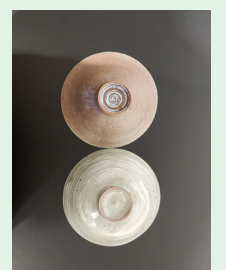
이번 수상을 통해 두 작가는 부산미술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는 7월 8일~13일 청년작가상, 7월 15~20일 오늘의 작가상 수상기념전이 열릴 금련산갤러리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 갤러리 전시소식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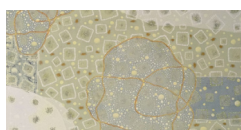
7.23-7.28  
眞善忍국제미술  
'眞善忍국제미술전'



8.27-9.1 김민서展



6.20-7.27  
SUMMER BREEZE  
메종드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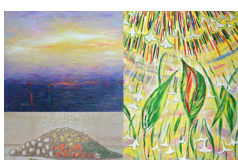
6.21-7.22  
이경희 '물결은 얼굴이 된다'展  
갤러리하스



7.1-7.6  
부산한국화전  
금련산갤러리



7.2-7.8  
이현기 개인전 'LIFE-木'  
해운대문화회관 제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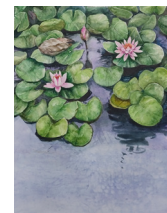
2025.7.6-7.13  
제27회 녹향회 정기전  
부산시청 제1전시실



7.13-7.20  
정지태 제11회 개인전  
미술의 거리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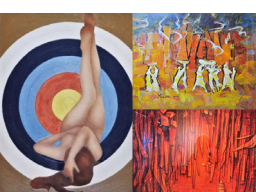
7.19-10.26  
힐마 아트 클린트 '적절한 소환'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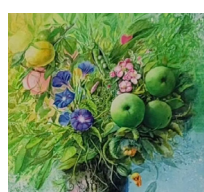
7.28-8.1  
제3회 향성회 정기전  
부산진구청 백양홀



8.3-8.10  
제31회 윤영석 개인전  
부산시청 제3전시실



8.12-8.17  
제3회 원로작가전  
금련산갤러리



8.19-8.24  
2025 부산수채화협회 동행전  
금련산갤러리



8.20-8.31  
장쌍년 초대전  
루미에르 갤러리

부산 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라00005

- 발행인: 최장락
- 발행처: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김성현 · 김중원 · 정연은 · 진수아
- 신현정
- 편집기자: 김은비
- 주 소: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 제51회 전국공모

# 부산미술대전

11.24월-12.20토

개막식\_12.2화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 2025년도 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작품공모

- 출품자격 | 국적제한 없이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대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출품가능)
- ▶ 부 문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 ▶ 원 서 교 부 : 2025. 6. 3.(화) ~ 당일 현장 접수시까지
  - ▶ 원서교부처 : (사)부산미술협회 사무국 또는 인터넷 교부 (<http://www.bfaa.or.kr>)

- ▶ 1차 작품사진 접수기간 및 시간, 장소 ※ 가접수는 불허함  
2025. 10. 23.(목) ~ 24.(금)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 부산예술회관 4층 10:00 ~ 17:00
- ▶ 2차 작품접수기간 및 시간(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2025. 8. 25.(월) 서예, 문인화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 부산예술회관 1층 10:00 ~ 17:00  
2025. 11. 16.(일)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10:00 ~ 17:00

- ▶ 작품접수처  
<디자인부문>, <서예부문>, <문인화부문>, <학술·평론부문>, <영상·설치>는 아래의 주소 참고  
(사)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협회소식란

- ▶ 출품수 : 1인 2점 이내

- ▶ 접수비 : 한국화, 서양화 (구상, 비구상 2점 출품시 각 6만원), 조각, 공예,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1점 6만원, 2점 10만원)  
서예, 문인화 (1점 5만원, 2점 8만원), 디자인 (1점 2만 5천원, 2점 4만원)

- ▶ 시상내용

| 구분     | 분야                                      | 인원  | 내역                        |
|--------|-----------------------------------------|-----|---------------------------|
| 대상     | 한국화, 서양화(구상, 비구상)<br>판화, 조각, 수채화, 민화·불화 | 1명  | 상금 1,000만원 및 상장(작품매입금 포함) |
|        | 공예                                      | 1명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        | 디자인                                     | 1명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 부산은행장상 | 서예                                      | 1명  | 상금 500만원 및 상장(작품매입금 포함)   |
|        | 문인화                                     | 1명  | 상금 500만원 및 상장(작품매입금 포함)   |
| 최우수상   | 회화 및 기타                                 | 2명  | 상금 300만원 및 상장(작품매입금 포함)   |
|        | 학술·평론                                   | 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        | 영상·설치                                   | 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 우수상    | 각 부문별(1명)                               | 10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        | 학술·평론                                   | 1명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 영상·설치                                   | 1명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특별상    | 후원처 요청시                                 |     | 약간명                       |
| 특선     | 각 분야별                                   | 약간명 | 상장                        |
| 입선     | 각 분야별                                   | 약간명 | 상장                        |

※ 사업운영에 따라 시상 및 수상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 수상작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 2025. 11. 24.(월) ~ 12. 20.(토)

| 장소             | 분야            | 기간                            |
|----------------|---------------|-------------------------------|
| 부산문화회관         | 조각, 공예, 민화·불화 | 2025. 11. 25.(화) ~ 11. 29.(토) |
|                | 서양화(구상), 조각   | 2025. 12. 2.(화) ~ 12. 6.(토)   |
|                | 서예            | 2025. 12. 9.(화) ~ 12. 13.(토)  |
|                | 문인화           | 2025. 12. 16.(화) ~ 12. 20.(토) |
| 부산시청<br>2층 전시실 | 판화, 수채화, 디자인  | 2025. 11. 24.(월) ~ 11. 29.(토) |
|                | 서양화(비구상), 한국화 | 2025. 12. 1.(월) ~ 12. 6.(토)   |
|                |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2025. 12. 8.(월) ~ 12. 13.(토)  |

※ 사업운영에 따라 전시장소 및 전시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 작품반출기간 전시작품 종료 후 1일 이내 (10:00~12:00 이내)

- ▶ 특전 대상 수상자 중에서 약간명은 KNN 숨은그림찾기 방송에 협의하여 추천

- ▶ 문의처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051)632-2400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8(대연3동) 부산예술회관 4층 (사)부산미술협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www.bfaa.or.kr](http://www.bfaa.or.kr)에서 참조바랍니다.



| 주 최 | BFAA (사)부산미술협회 | 주 관 |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 후 원 | 부산광역시 (사)한국미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 부산MBC | KNN

2025

THE  
51TH  
GRAND ART  
EXHIBITION  
OF BUSAN